2025년 4월 18일 금요일

LOCAL 영암,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뒷받침한다

무안, 4~5월 행사·축제 중단 구제역 확사 차다·방역 강화

무안군은 최근 확산 중인 구제역 차단 을 위해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각종 행사 를 전면 취소하거나 연기・축소한다고 17 일 밝혔다.

군은 지난 3월 16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 한 이후 초동방역에 총력을 다해 확산을 저지했지만 방역대 3km 내 이동제한 해제 검사 과정에서 지난 11일 2곳, 14일 3곳 농가에서 구제역 추가 발생이 확인됐다.

군은 즉시 발생농장과 주요 도로에 통 제초소를 9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드론 공동방제단과 제설차량까지 투입해 방역 대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 "구제역 확산 차단을 최우 선 과제로 삼고, 법정 의무 교육과 같은 불 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사와 축 제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5월 3일 어린이날 기념행사 를 전면 취소했고, 4월 19~20일로 한차 례 연기됐던 돈·세·고 축제는 10월 3~4 일로 재연기했다. 5월 7일 열릴 예정이던 제56회 무안군민의 날은 6월 중순으로 잠 정 연기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

해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해남군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

결혼이민자의 가족과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 그램은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 확보와 농 촌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다.

이에 따라 군은 기존 광주·전남지역으 로 한정해 왔던 결혼이민자의 거주지를 전국으로 확대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 에 적극 나서고 있다.

초청 대상은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가족• 친척이며, 신체 건강하고 범죄사실이 없 으며 국내 불법 체류·취업 사실 등이 없 는 19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이다.

체류 기간은 기존 5개월에서 3개월 연 장된 8개월 이내로, 한시적으로 농업 분 야에 종사하게 되며, 성실근로 시 재입국 도 가능하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

육아 모임 운영…참여 가정 공동육아공동체 형성 산후조리비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 30종 확대 시행

산, 공동육아를 뒷받침하고 있다.

진하고 있다.

군은 지역민끼리 육아 정보를 공유가 운영 중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육아 정보를

영암군이 지역민의 건강한 임신과 출 로 나아가도록 돕는 이 프로그램으로, 이 날부터 30개의 참여 가정 모집에 들어갔 17일 영암군에 따르면 민선 8기 들어 다. 프로그램에서는 양육 태도 코칭(5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영암' 정책을 추 9일), 기질과 성격검사 교육(5월 16일) 도 진행된다.

공동 육아 또래 모임 해피맘에는 0~5

전화(061-470-6538)로 하면 된다.

공동육아 모임 지원 이외에도 영암군은 영암군민의 건강한 임신・출산 등을 뒷받 침하는 30종의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시행

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나서고

6개월 이상 영암군민이고, 출생아를 신 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다양한 고한 산모가 산후조리비 영수증을 제출하 가능한 '공동 육아 또래 모임 해피맘'을 공동 육아 모임을 만들어 지원할 방침이 면 최대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주는 제도

올해부터는 '임신 기능 복원 시술비 지 서'도 받아 볼 수 있다. 제공하고, 참여 가족들이 공동육아공동체 세 자녀를 둔 엄마나 아빠가 대상으로, 선 원사업'으로 영구피임 시술자 중 자녀 계

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은 영암군보건소 획을 변경해 출산을 원하는 가정을 돕고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한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도 지난해 먼저,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영암형 출 11월부터 확대해 여성 1인당 25회 지원하 던 시술비를 출산 당 25회로 변경했고, 나 문의하면 된다. 이 제한도 폐지해 이제 50세 이상의 여성

건소 방문 없이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

임신 전부터 가임기 남녀의 건강관리를

은 올해부터 20~49세 가임기 남녀면 결 55세 이하 남성, 49세 이하 여성이 시 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는데, 이 사업 술 내역, 진료비 서류를 제출하면 정·난 도 온라인 e-보건소에서 신청·청구할 수

> 영암군의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보건소 (061-470-6538) 로

군 관계자는 "공동육아 프로그램과 모 자보건사업 확대로 영암군민이 든든한 지 온라인 '정부24', 'e-보건소' 등에서 간 원을 받으며 임신·출산·육아를 할 수 있 편하게 시술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보 도록 돕겠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암을 위해서 영암군보건소가 앞장서겠 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나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업인에게 목재파쇄기를 임대하고 있다.

나주, 영농철 농기계 임대사업소 비상근무

6월 15일까지 운반·세차·목재파쇄기 도입 등 밀착 지원

나주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 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 소의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6월 15일까 지를 '봄철 집중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동 수동 본점과 금천・봉황・문평・남평・공산 •노안 분점 등 7개 임대사업소는 매주 토 요일 연장 근무를 시행한다. 특히 모내기 철인 5월 17일부터는 본점에 한해 일요일 과 공휴일에도 문을 연다.

시는 124종, 1523대의 농기계를 보유

비 준비를 마쳤다.

농업인은 권역별 사업소에 유선 예약 후 방문하면 필요한 장비를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다.

현장의 어려움에도 세심히 대응하고 있 다. 운반 차량이 없는 농기를 위한 '농기계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며 고장 시 '긴급 출 동서비스'도받을 수 있다. 세척이 어려운 농기계 관리를 위해 고압 장비를 갖춘 '셀 프 세차장'도 전 사업소에 마련돼 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도 소홀히 하지 하고 있으며 장비 사전 점검 등 영농철 대 않는다. 시는 3월부터 10월까지 총 20회

의 안전 · 보건 교육을 실시하며 기계 조작 법과 안전수칙, 응급처치 등 실용적인 정 보를 전달한다.

최근 시는 산불 예방과 영농 부산물의 친환경 처리를 위해 1억3000만원을 들여 목재파쇄기 10대를 추가 도입했다. 새 장 비는 파쇄지원단과 일반 농가 임대에 활 용돼 부산물 소각 없는 안전한 처리를 지 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비상근무와 각종 현 장 지원이 농업인의 일손을 돕고 영농 일 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한 사용과 깨끗한 반납 등에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

강진, 동네상권발전소 공모 선정 골목형 상점가 조직화·네트워크 형성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네트워크형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

전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성을 3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군은 서문길 상인들과 함께 동네상 업 계획을 마련했다.

있는 여건에도 특성 있는 주변 상권에 다. 비해 상인회의 부재 등으로 상권 활성

강진군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화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자율상권 구역과 다른 곳에 위치해 경쟁력이 비교적 낮다.

강진군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공모 사업으로 골목형상점가의 조직화와 동네상권발전소네트워크형은골목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권 발전을 위 형 상점가 구성이 필수이며, 상권 발 한 초석을 다져 자율상권으로 성장해 나갈 구상이다.

군은 서문길이 수국축제장과 인접 해 있고 강진의료원, 군청, 버스터미 권발전소의 구체적인 전략 수립 등 사 널, 강진아트홀 등 주요 시설이 근처 에 위치해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해 시 서문길은 인근 아파트 주거단지가 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

강진=이진묵 기자 sa4332252@

신안,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다이아몬드 해역 쥐노래미 방류

신안군은 다이아몬드 해역 내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을 위해 쥐노래미 1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하는 쥐노래미는 전장 5cm 이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염 병 검사를 마친 건강하고 활력이 좋은 종 자다.

군은 해당 지선 어촌계(어업인)와 함 께 선상 방류를 실시했다.

방류해역은 2022년부터 5년간 50억원 (연간 1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쥐노래 미 산란・서식장을 조성 중인 해역이다. 지금까지 어초 (563개) 투하와 해조류(곰 피, 다시마 등)를 집중 이식해 놓은 해역 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효과가 클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